십자가 어리석음이 주는 만물 소유권

(고린도전서 3:18~23)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어리석음이 주는 만물 소유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어리석음이 주는 만물 소유권”
사도 바울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 21~22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높였기에 분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포함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라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것이라”는 부분은 공동명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각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라는 말씀은 “너희 각자가 만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39절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구절들의 표현은 본문과 비슷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본문 22절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언급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말씀에 적용해보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포함한 만물이 내 것이라는 의미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 다루면서 앞부분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다소 뜬금없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주인이라 하는가? 그리고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한들 무엇이 좋으며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 중에서 일부라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릉의 앞바다를 날마다 산책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청와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며, 굴지의 기업들의 재산을 나의 것이라 주장할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만물 속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너희 것이라고 한 것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가진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언급된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만물을 내 것으로 갖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지혜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 것을 있다고 느끼는 의식이 죽는 것이고, 세상 것이 좋다고 느끼는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것이 되면 만물이 내 것이 되기는커녕 만물에 대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만물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서 죽으면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만을 붙잡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있음에 대해 죽어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좋음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물이라 함은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만물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답을 모르는 자로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만물에 대해 있음도 모르고 좋음도 모르고 만물 속에 포함돼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것이 23절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아는 것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힌트가 됩니다. 만물이 내 것이 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지실 때 나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먹이사슬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낼 수 없는 세상을 향한 생각이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답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자리에 섰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라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남아서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직장과의 관계도 맺어야 하며,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맺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보다 크게 보자면 태평양과도 관계를 맺고 미국과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과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태양과 관계하는 것인데 그 태양은 결국 태양계에 속해있기에 태양계 전체와도 관계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관계를 따져서 이어가다 보면 우주가 무한한 것 같아도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관계가 뻗어가는 것이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무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붙잡으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알고 계신 답과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주권적으로 펼쳐나가시는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생각을 펼쳐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답도 생각해 낼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심으로써 나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시면 나를 중심으로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나를 통해 확장되는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

습은 나를 중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주권의 원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 안에는 만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서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펼치시기 위해 가지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기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승철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 대해 생각이 없는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펼쳐나가시기 쉽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태승철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펼쳐나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 뒤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은 나를 소유하셔야 하는 그리스도를 전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주권적으로 펼쳐나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중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주권의 원 안에는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주권의 원을 그려 가시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 사람이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중심점으로 하는 주권의 원을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점으로 삼으실 사람이 두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만 사람이든 그 사람을 중심점으로 삼는 주권적 생각의 원을 그려나가실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나만을 중심으로 삼으시는 것 같이 관계하십니다. 그렇게 바

울을 중심으로 삼으시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삼으실 때는 나를 중심으로 펼치시는 주권적 생각 안에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시키십니다. 또한 바울과 아볼로도 각각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여기에 아무런 모순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는 바울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태승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십자가 가족 여러분들 모두는 태승철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을 중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생각의 원 안에 태승철이 포함되게 됩니다. 태승철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모순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라면 태승철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삼으셔서 주권적 생각을 펼쳐나가시는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영역 안에 태승철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점 없이 원은 그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원에 주인이 있다면 정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입니다. 그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점들은 다 중심점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일 때에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실 때 내가 중심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삼아 당신의 생각을 주권적으로 펼쳐나가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에 넣고 뱃속에 삼키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진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다만 오장육부는 있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전혀 있음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오장육부보다 내 것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더

확실한 상황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입속에 혀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자기의 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는 분명히 내 것이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만물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의 영역 안에 나를 중심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오장육부가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 것들의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낄 뿐입니다.

오장육부는 몸 안에 있지만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몸 바깥에 있는 대상들만 있다고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을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 만물은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것이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점으로 주권적 생각의 원을 펼쳐나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궁중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의 중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은 경우입니다. 궁중의 노예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궁중에는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모르는 상태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식쟁이의 어리석음이 절정에 이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답과 생각들이 다니엘이 관계를 맺은 주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로 뻗어 나가며 다니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재산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리

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이기에 열 단계든 스무 단계든 거치다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뻗어 나가실 때 여러분을 중심점으로 내려온 생각이 삼성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삼성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의 원 안에 포함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펼쳐나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답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불가능해져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아셔서 사랑하셔서 앞서서 이 세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사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생각하자마자 나는 나를 속이는 것이며,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고, 진정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생각을 가지신 조물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란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분쟁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바울도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할 일은 누군가를 자랑하며 추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생각의 중심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중심점

이 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점으로 삼으실 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필요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는 분들을 보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마치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심점으로 하는 주권적 생각의 원 안에서 태승철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맞추어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실 때 저는 여러분을 중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주권의 원 안에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중심점으로 하는 하나님 주권의 원 안에서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점으로 삼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누구를 추종할 수도 없고 누구를 정답을 주는 원천으로 생각하여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물에 대해 나는 하나님 생각의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돈 문제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펼쳐나가는 중심점이 됩니다. 자식 문제에 대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식 문제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은 나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나를 통해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펼쳐나가게 됩니다. 나를 중심점으로 하는 원 안에 있기 때문에 돈도 자식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아침에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만물이 여러분 것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자리인 생각이 돌아갈 수조차 없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주권적으로 펼쳐질 때 여러분이 중심점이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닿는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만물의 소유권이 가장 어리석은 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권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향하여 갈 뿐입니다. 오장육부가 있어도 느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중심점으로 삼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